

하반기(제23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부분점수 인정 기준표

| 번호 | 정답(점수) | 부분점수(기준) | 비고 (참고사항) |
|-----|---|---|---------------------------|
| 41번 | <p>자기 반성의 가치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고침으로써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10점)</p> <p>- ‘-는 것에’를 대체 가능한 표현인 ‘-는 데(에)’, ‘-는 데에서’, ‘-는 데만’ 등으로 쓸 경우 감점 없음. 다만, ‘-는 데’의 경우 띄어쓰기 안 할 경우 ‘-(으)ㄴ/는데’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점 감점.</p> <p>- ‘-는 것이 아니라’를 ‘-지 않고’, ‘-지 말고’, ‘-기보다는’으로 쓸 경우 감점 없음.</p> <p>- ‘-(음)으로써’를 ‘-기 위해’, ‘-도록’, ‘-는 것을 통해’, ‘-고’, ‘-아/어서’ 등으로 바꿔 써도 감점 없음.</p> <p>- ‘자기 반성의 가치는 ~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를 ‘~ 모색하는 것이다’로 종결할 경우 호응 문제로 1점 감점.</p> | <p>❖ 9점 - 정답에서 맞춤법 오류가 있는 경우 - 주어와 종결 부분의 호응이 맞지 않는 경우 - ‘-는 것에’의 대체 인정 표현인 ‘-는 데’의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경우</p> <p>❖ 8점: - 제시된 표현의 순서가 바뀌거나 제시된 표현 중 하나를 쓰지 않은 경우 - 의미는 맞으나 두 문장으로 쓴 경우 - 주제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 연결어미가 한 개 틀렸을 경우</p> <p>❖ 6점: - 순서, 제시된 표현이나 주제 누락, 문장 수 등의 문제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서 연결어미가 한 개 틀렸을 경우 - 연결어미가 두 개 틀렸을 경우</p> <p>❖ 4점 : - 순서, 제시된 표현이나 주제 누락, 문장 수 등의 문제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서 연결어미가 두 개 틀렸을 경우 - 연결어미가 세 개 틀렸을 경우</p> | <p>* 각 감점 사항은 중복 적용함.</p> |

| 번호 | 정답(점수) | 부분점수(기준) | 비고 (참고사항) |
|-----|--|---|--------------|
| 42번 | <p>언제든지 해설을(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점)</p> <p>- ‘언제든지’ 이외에도 ‘아무 때나, 언제나, 항상, 수시로, 어느 때든지’의 경우 정답으로 인정</p> <p>-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해설을 해 주다, 해설에 나서다, 해설이 가능하다’를 쓴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p> <p>- ‘-는 것은 아니다’ 대신 동사에 따라 ‘-지는 않다, -을 수는 없다’를 사용하여 내용적 호응이 이루어진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p> | <p>❖ 9점</p> <p>- 정답에 해당하나 주요 문법 항목에서 형태적 오류가 있는 경우</p> <p>- 정답에 해당하나 주요 어휘 항목에서 철자 오류가 생긴 경우</p> <p>❖ 7점</p> <p>- ‘해설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과 ‘-는 것은 아니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나 ‘언제든지’와 같은 시간 표현이 없어 전체적 문장 호응이 부적절해진 경우</p> <p>- ‘-을 수는 없다’ 대신에 ‘-을 수가 없다’를 사용하여 부분부정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p> <p>❖ 6점</p> <p>- ‘언제든지’의 표현과 ‘-는 것은 아니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나 ‘가다, 오다’ 등과 같이 ‘해설을 들을 수 있다’의 행위가 전혀 살아있지 않은 경우</p> <p>❖ 3점</p> <p>-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등의 표현은 없으나 ‘언제든지’, ‘-는 것이 아니다’ 와 같이 부분적으로 문법적 표현이 사용된 경우</p> | |

| 번호 | 정답(점수) | 부분점수(기준) | 비고 (참고사항) |
|-----|--|--|--------------|
| 43번 | <p>이미 알고 있었다는(알았다는) 뜻이 표현함으로써 (10점)</p> <p>- ‘이미 알고 있다’ 이외에도 ‘예측하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짐작하다’의 경우 정답으로 인정</p> <p>- ‘-듯이’ 이외에도 ‘-처럼’, ‘같이’ 를 쓴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p> <p>- ‘표현하다’ 대신 ‘말하다’, ‘이야기하다’, ‘행동하다’를 쓴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p> | <p>❖ 9점</p> <p>- 정답에 해당하나 주요 문법 항목에서 형태적 오류가 있는 경우</p> <p>- 정답에 해당하나 주요 어휘 항목에서 철자 오류가 생긴 경우</p> <p>❖ 8점</p> <p>- 정답에 해당하나 문장을 종결하여 쓴 경우</p> <p>❖ 7점</p> <p>-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살지 못한 상태에서 ‘-듯이 표현함으로써’ 부분이 정확한 경우</p> <p>-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과 ‘표현하다’의 의미가 살아 있으나 ‘-듯이’와 같은 비유 표현이 부족한 경우</p> <p>❖ 6점</p> <p>-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등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부분이 부족하여 전체적 문장 호응이 부적절해진 경우</p> <p>❖ 4점</p> <p>- ‘예상하다’나 ‘-듯이’ 등의 표현이 부족하고 ‘이야기함으로써’, ‘표현하여’ 와 같이 부분적으로만 내용적 호응이 이루어진 경우</p> <p>❖ 3점</p> <p>- ‘예상하다’, ‘기대하다’와 같은 어휘를 제시한 경우</p> <p>❖ 0점</p> <p>- 실체, 규명, 불안감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경우</p> | |

| 번호 | 정답(점수) | 부분점수(기준) | 비고 (참고사항) |
|-----|--|---|--------------|
| 44번 | <p>인간은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 등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주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p> <p>살다 보면 자신이 받을 이익을 먼저 계산해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란 내가 받는 이익과 관계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럴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발전해 더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p> <p>이런 관계를 맺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이다 보니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 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 4단계 이상이고 700-800자 정도를 썼을 때 - 사용한 어휘와 표현이 고급의 수준에 적절할 때 ❖ 18~2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나 구조, 어휘와 표현에서 고급의 수준에서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을 때 ❖ 15~1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 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 3단계 이상이고 700-800자 정도를 썼을 때 - 사용한 어휘와 표현이 고급 정도의 수준일 때 ❖ 8~1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 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 3단계 정도일 때 - 사용한 어휘와 표현이 중급 정도의 수준일 때 - 400자 미만으로 썼으나 고급의 표현이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때 ❖ 6~7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및 과제 수행/수사적 구조/ 어휘·문법·맞춤법/사회언어학적 기능 수행 등에서 2단계 정도일 때 - 기존의 초급 수준의 글일 때 ❖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자 미만의 글로 내용이나 구조, 표현에서 이해하기 힘들 글을 썼을 때 | |

2011년도 제23회 한국어능력시험 (고급) 주관식 채점 예시

※ 문항번호 44번

| | | |
|--------|---|-----|
| 학생답안 | <p style="text-align: center;">바람직한 인간관계</p> <p>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관계가 즉 인간관계이다.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 사고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의 결류를 필요하다. 성공하고 싶으면 뛰어난 능력이 있을 뿐더러 좋은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간관계에 불구하고 자기의 세계중만 생활한다면 점점 외음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실패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좋은 인간관계가 있으면 반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p> <p>뛰어난 능력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다. 나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편한 마음으로 남들이 대하고 항상 웃으면서 남들이 도움을 주고 남들이 나에게도 인심으로 대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서로 이해하거나 관심이 많아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들 좋은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가 있기 위해 노력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p> <p>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해야 한다. 먼저 자신 겸손한 태도가 있다고 본다. 다음 우리 주위의 친구와 가족들의 관계가 잘 처리하고 친할 수록 친하게 만든다. 그리고 남들의 부탁이 자신의 능력범위에 할 수 있으면 거절하지 말고 전력으로 도와 줘야 한다고 본다.</p> <p>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있으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다들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 |
| 구분 | 채점 근거 | 점수 |
| 내용과 구성 | <p>이 문제에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p> <p>①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 ②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③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p> <p>그러나 이 답안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를 성공이나 능력 등과 비교해 썼을 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관련 없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p> | 12점 |
| 표현 | <p>고급의 어휘와 문법 등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으나 어휘의 경우 문맥에 적절하지 않으며 문법의 경우도 오류가 많습니다.</p> <p>특히 동일한 표현(‘-다고 보다/생각하다’, ‘-(으)ㄴ 수 있다’)의 반복적 사용이나 한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 등(실패감, 인심으로 대하다 등)이 많이 보입니다.</p> | |
| 기타 | 문제에 제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안지에는 제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

| | | |
|---------------|---|------------|
| <p>학생답안</p> | <p>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려면 인간관계를 중요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 하며 살아야 하면 그 교류를 통해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수 있으므로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사람을 골라가며 사귀면 안되는 것이다. 흔히 자기과 다르게 생긴사람이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들과 다른 다는 이유로 차별하며 사람을 골라가며 사귀는 경향있다. 이런경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수가 없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따듯하게 대하면 그보답은 반드시 자신에게 올것이며 많은 사람들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에 따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되므로 유지할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나는 지금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p> | |
| <p>구분</p> | <p>채점근거</p> | <p>점수</p> |
| <p>내용과 구성</p> | <p>이 문제에서는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되,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① 인간관계가 중요한 이유 ②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 ③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이 글에서는 ①과 ③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방법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②의 경우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차별의 문제에 대해 쓰고 있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또한 글을 구성함에 있어서 의미적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단락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p> | <p>16점</p> |
| <p>표현</p> | <p>고급 수준에 적절한 어휘나 문법의 사용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표현이나 어휘(‘-고 생각하다’, ‘맺다/유지하다’)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p> | |
| <p>기타</p> | <p>외래어나 한자를 한국어 표현으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p> | |

| | | |
|---------------|---|------------|
| <p>학생답안</p> | <p>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다. 공동체 속에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도 있고 문화와 배경이 다른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피해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좁은 세상과 시야 속에서 살게 될 것이며, 동시에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될 것이다.</p> <p>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한다. 상대의 배경과 처한 상황을 헤아려 주려는 노력, 또는 대화를 통해 이해 해주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는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이해해 준다면 서로의 입장은 다르더라도 관계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p> <p>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부터 열어야 한다. 활짝 웃는 얼굴에는 아무도 침을 못 뱉 듯이 활짝 열린 마음 앞에 굳게 마음을 닫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심은 항상 통하는 법이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마음을 열어 놓는다면 관계는 바람직하게 유지될 것이다. 글로벌시대의 현재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배경을 가진 우리들도 열린 마음과 자세로 꾸준히 교류를 한다면 언젠가는 친 가족, 친 형제자매처럼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다.</p> | |
| <p>구분</p> | <p>채점근거</p> | <p>점수</p> |
| <p>내용과 구성</p> | <p>제시된 주제를 일관성 있고 응집성 있게 다루었으며, 문제에서 요건으로 제시한 내용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이 요소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에 대한 부연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p> <p>그러나 두 번째 단락의 ‘먼저’로 시작된 부분은 ‘다음으로는’과 같은 설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이야기가 중간에 누락된 인상을 줍니다. 또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교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글의 주제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글로벌 시대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론의 주장이 본론의 흐름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맺어졌습니다.</p> | <p>24점</p> |
| <p>표현</p> | <p>전체적으로 고급 어휘와 표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약간의 문법적 오류가 나타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고급 문법이 안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를 다양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 |
| <p>기타</p> | <p>문단 구성이 분명하고 글의 흐름이 논리적입니다.</p> | |